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2면
자율차 핵심부품 제조기업
새만금에 들어선다

전주매일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음 7월 28일) 제262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서 전국기능경기대회 '팡파르'

16년 만에… 철저한 방역 속 기술경기 중심 축소
21일까지 8일간, 전국 17개 시도 2600여명 참가
무관중 경기 · 온라인 생중계…전북 5위이상 목표

전북도는 국내 최대 숙련 기능인의 축제인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4일부터 21일까지 도내 4개 시군, 7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개최 이후 16년 만에 전북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미래를 여는 천년전북, 기술로 꽃피우다'라는 슬로건 아래 고용노동부, 전북도, 전북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전북도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다.

지역 간 숙련기술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도모하고 범국민적 숙련기술 우대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이번 전국대회에는 1,778명의 선수와 850여명의 관계자 등이 참여해 자동차정비 등 50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최 여부를 고심하다 대회 출전을 위해 수년간 기술을 갈고 닦은 참가선수들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엄격한 방역조치 속에서 기술경기 대회 중심으로 축소해 운영된다.

14일 군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회식은 참가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송지용 전북도의장,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장동섭 삼성기능올림픽 상무이사 등 6명과 선수대표 2명만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소화로 진행됐다.

당초 계획되었던 축하공연 등 식전 행사와 대규모 환영 리셉션은 전면 취소됐다.

개회식은 17개 시도 영상소개에 이어 공정한 경기를 약속하는 대표선수 선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의 영상 축사, 환영사, 토크쇼 순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행사과정은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 됐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환영사에서 "코로나로 유난히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땀을 흘리며 훈련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

또한 송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최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조,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방역대책을 꼼꼼히 준비했고 철저하게 시행할 계획이다"며 "서로의 안전을 위해 불편하더라도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 등 참가선수들의 사전 영상질문에 답변형식으로 진행된 토크쇼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50개 직종에 대해 산업현장과의 연계성, 만족도 등을 분석해 내년 중에 직종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월드클래스 300 등 우수기업과 일자리 MOU를 체결하는 등 입상선수들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1,778명의 선수들이 자웅을 겨루는 이번 대회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7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지역별로는 전주 1개소(전주공고) 군산 3개소(군산기계공고, 새만금컨벤션센터, ㈜명신) 익산 2개소(전북기계공고, 이리공고) 완주 1개소(완주 하이텍고)에서 자동차정비, 제과, 제빵, 석공예 등 총 50개 직종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경기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참가선수, 심사위원, 진행요원만 출입이 가능하며 지도교사, 학부모 등 일반 관람객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하고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대회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능경기대회에 관심 있는 도민 등 일반 관람객을 위해 각 직종별 경기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에서 전북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참가 전·중·후 단계별로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진행된다.

/유호상기자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송하진 도지사, 김승환 교육감, 송지용 전북도의장,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경기장을 둘러보고있다.

도내 유기동물 매년 증가세… 올 9500마리 추산

전북도는 반려견의 질병,노령화, 대형종의 사료비 부담증가,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불화 등으로 버려진 유기견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도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7,881마리(전국의 5.8%)이며 올해 8월까지 유기동물은 6,260마리(작년의 80%)로 연말까지 9,500마리가 유기, 유실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기된 동물은 도내 24개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간 보호한 후 입양될 때까지 장기간 보호하다 입양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하고 있으나 장기간 보호(평균 보호기간 31일)에 따른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물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동물과의 교감을 뒤로하고 동물을 유기, 방치하는 것은 반려인의 아픔"이라며 "반려동물 구입, 입양시 반드시 가족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통한지 세계문화유산화 전주시, 자문단 꾸린다

한지장 · 학계 전문가 등 참여 다각적인 방안 모색

전주시가 전통한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한지장 등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리기로 했다.

시는 전통한지 세계화와 원형 보존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통한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가칭)전통한지 세계문화유산화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한지장과 한지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로 꾸려지는 '전통한지 세계문화유산화 자문단'은 한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또 한지 생산 지자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지 원형 연구, 국내외 세미나 개최, 한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대국민 서명운동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한지의 원형을 보존하고 한지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전주 한지장 지정 ▲농가와 닥나무 계약재배를 통해 우수한 닥 원료 생산 ▲전주한지 아카이브 구축 ▲전통한지 생산시설을 구축사업 ▲전주국립박물관 등과 전주한지 활성화 협약 체결 ▲신협중앙회와 한지 후계자 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특히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된 막시밀리앙 2세 책상을 복원하고 로마 교황청 기록물을 한지로 복본하고 교황에게 전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탈리아 지류복원 전문기관으로부터 전주한지가 문화재 복원용지로 적합하다는 인증을 획득하는 등 한지 세계화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한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길에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통문화도시 천년전주을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통한지를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길이 남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북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국비 70억원 확보

전북도가 202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비 70억원을 포함한 총 1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보건기관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설개선, 장비보강을 통해 농어촌지역 보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1년에는 시설개선 22개소 85억원, 의료장비 159대 11억5,000만원, 보건사업차량 13대 3억5,000만원을 보건기관에 투자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지역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완주군 용진보건지소와 장수군 번암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 총 28억원을 투입해 지역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또한 부안군은 소생활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행안면에 10억원을 투입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신축한다. 아울러 노후화된 보건기관의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총 31억원을 투입, 장수군, 김제시, 남원시 보건소를 개보수나 증축하고 정읍시, 완주군에 6억원을 투입해 선별진료소를 새롭게 설치하게 된다.

전북도는 지난 1994년부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시작해 올해까지 약 2,078억원을 투자함으로써 도내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차량을 지원해 도민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 오택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현황에 맞는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